

대진표 나왔다...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 본격 선거전

민주당, 곡성군수 조상래 후보·영광군수 장세일 후보에 공천장 전달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박용두 후보 확정·영광 장현·정광일 후보 결선 2년 뒤 지방선거 전초전... 민주 '덧밭 사수'·조국 '월세살이' 총력전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지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각 정당 후보 경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본선 주자를 확정하고 덧밭 사수에 들어갔으며,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직접 선거구에 거주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필승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통 지지기

반인 호남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전도 역대급 폭음이 무색할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11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 경선을 마친 뒤 공천장 전달을 끝냈고, 조국혁신당은 경선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민주당은 곡성군수 선거에 조상래 전 전남도위원을, 영광군수

선거에 장세일 전 전남도위원을 공천했다. 이 대표는 공천장 수여식에서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엄청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총선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도저히 대책이 없는 사람에게 금융치료가 필요하듯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규모도 작고 각 지역에 분산돼 있지만,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선거"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덧밭'인 곡성·영광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경선을 거치면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곡성군수 후보에는 박용두 전 곡성교육지원청 대표가 손승주 전 공군 대령과 100% 국민 여론조

사 방식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승리했다. 영광군수 후보는 지난 9·10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1·2위를 기록한 장현 전 호남대 교수와 정광일 김대중재단 수석부위원장 간 결선이 진행되는 등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곡성·영광지역을 전락 선거구로 지정하고 '한 달 월세살이' 등으로 총력을 다하면서, 민주당 덧밭인 두 지역에서 '경선=당선'이라는 기존 공식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덧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탄탄한 지지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광을 찾아 "호남

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혁신당의 재보선 출마가 호남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고, 호남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보당도 '농활'을 통해 표밭을 다지면서 영광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보당은 최근 주말과 휴일에 당원과 지지자 300~500여명이 매주 영광에서 농촌 일손을 돕는 등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광주와 전남에서는 그동안 선거를 통해 끊임없이 진보당 정치인이 풀뿌리 정치에 참여한 자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늘 현장에서 지역민과 소통했고 지역민의 아픔을 가장 먼저 끌어안았기 때문에 이번 재선거에서 충분히 겨뤄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 개회식에서 '원팀' 세리머니를 하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임 과기부장관, 조태웅 국정원장, 윤 대통령, 볼프강 앙거를쳐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아르메아누 체치리 마늘레 주한루마니아 대사. /연합뉴스

윤 대통령 "인태 대표 '국제사이버훈련허브' 위상 확립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험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인태 평양(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을 둘러본 후, 지난해 7월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 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 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윤 대통령 앞 '사이다 발언' 화제

광주민생토포론회 발언 SNS 퍼져 지방소멸·전남관광 대책 제안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난 5일 광주 민생토포론회 당시 발언이 뒤늦게 SNS 등을 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 소멸 문제를 제기하고 방안을 건의하는 등 '사이다 발언' 쏟아냈다는 평을 받으면서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이어 "2026년 여수에서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리는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 해양관광에 대한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전남을 비롯한 남해안 관광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며 정부 부처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해 윤 대통령의 긍정적 발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민생토포론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완도에 '완' 자는 옥편에 '빙그레 웃을 완'이라는 거 아셨나"고 질문한 뒤 "왜 '빙그레 웃을 완'인가 봤더니 옛날에 사람들이 완도를 찾아오게 되면 명사십리나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안도를 포함한 그 아름다운 경관에 우선 빙그레 웃는답니다"라고 말을 꺼냈다.

국민과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이제는 해양이 과학이다. 남해안의 해양 관광을 'K-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문화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모시고 국무총리께서 여수에서 미니 국무회의를 한 번 개최하시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 부위원장은 끝으로 "여수 섬 박람회뿐만 아니라 남해안 관광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게 되면 광주를 포함한 많은 소멸 지역에 관계인들, 생활인들이 찾아오게 돼 소멸에 대한 보완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수 섬 박람회 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방 소멸 위기는) 중앙정부 8개 부처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도도 포함되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분기별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어젠다로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 부		모집인원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별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 학부 <small>(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small>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 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소로 36